

“채식 좋은거 말로 다 못해요”

생명사랑채식실천협, ‘불경에서 본 채식’ 토론회



한국생명사랑채식실천협회 부산모임 소속 불자들의 토론회 장면.

채식을 꾸준히 해온 채식주의자들이 ‘불경에서 본 채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모임을 가졌다.

6월 7일 부산 서면의 한 채식뷔페에서 열린 모임에서 주제 발표를 한 김고중 씨는 “열반경에 보면 ‘어래계서는 왜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느냐’는 가섭 존자의 질문에 대해 ‘고기를 먹는 사람은 자비의 종자가 끊어지기 때문이다’고 답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능엄경, 범망경, 능가경 등 여러 대승 경전에서 육식을 피하고 채식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생명체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절대적인 평등관에서 비롯된 불살생과 관련된 채식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실천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대안적 삶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채식의 대

“인내·포용력 생겨나고 건강·자비의 삶 열여줘”

중화를 위해 최근 창립된 한국생명사랑채식실천협회부산 모임(회장 김고중) 회원들이기도 하다. 사찰이나 명상이나 요가 센터 등에서 각자의 수행을 이어오다 채식을 연결고리로 모임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음식을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속의 사랑과 자비심을 키워주는 도구로 인식한다. 채식이 탐진치를 계정 해로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라고 믿는다.

“술 먹기 좋아하고 고기를 무척 좋아했는데 수행을 시작하면서 1년 전부터 채식을 한다”는 전은진 씨는 “맛있는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사람들과 어울려 흥청망청하던 시간이 줄어들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태동 씨도 “채식을 하면서 각종 건강검진에서 깜짝 놀랄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고 성격도 많이 달라졌다. 다른 종교를 오랫동안 신앙했지만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했던 사랑과 자비심, 인내력, 포용력이 차츰 생겨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식물의 생명을 해치고 식물을 먹는 것은 괜찮은가?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다. “물론 식물의 생명도 소중하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생명체의 도움을 없이는 살지 못한다. 음식을 이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여겨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공양으로 받는다는 공양계의 가르침처럼 스스로의 수행에 도움을 받기 위해 채식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22년 동안 채식을 이어온 고용석씨의 대답이다.

14년 전부터 꾸준히 채식을 실천해왔지만 불경 속에 채식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줄은 몰랐다는 서명자와 김흥련 씨는 채식을 적극 권한다. “요즘 웰빙 바람이 불어 채식이 좋은 것은 다 알지만 실천하기는 힘들어 해요. 그러나 육류요리를 안먹으면 세제를 안 써도 되니 환경보호에도 좋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동물이 없어요고, 고기 1인분 얻음 곡물로 22명을 먹일 수 있구나 굶주리는 사람을 줄일 수 있고, 나 한 사람의 채식 실천이 가져오는 파급효과가 참으로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실천해보세요.”

이들은 7월 15일 오후 4시 영광동서사랑방에서 채식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채식 강연회 및 시사회를 가질 예정이다. 018-213-7541

천미희 기자 mhechoon@buddhapia.com

호국영령 천도 흥법바라밀제

흥법대상에 박명해 보살

부산 흥법사(주지 심산)는 호국영령 천도를 위한 제16회 허공마지 흥법바라밀제를 6월6일 흥법사 잔디마당에서 봉행했다.

6일 오전 10시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허공마지 흥법 바라밀제는 감로사 주지 혜홍 스님의 집전 아래 1부 천도제가 봉행됐다. 천도제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해 1천여명의 사부대중은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운문사승가대학 학장 명성 스님은 법어를 통해 “내가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보살의 화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마음의 그릇을 잘라내고 자리아타를 실천하는 배푸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고 말했다.

2부는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의 경과보고, 장학금 전달, 흥법대상 표창, 법문 순으로 봉행됐으며 흥법사 정원에 봉안한 관세음보살 점안식으로 회향했다.

이날 흥법대상은 용인 법륜사 신도회장인 박명해 보살이 수상했다. 박명해 보살은 여성불교신도회(보문회)를 발족, 20년동안 회장을 역임했으며 재단법인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하며 전국의 도량봉사 및 인재발자에 꾸준히 보시해왔다. 박명해 보살은 이날 흥법대상 상금으로 받은 1천만원을 불교여성개발원의 발전과 숙원사업 실천을 위해 불교여성개발원에 기탁하겠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관련인덕부 14편 한편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고등학교 2명에게 30만원, 중학생 4명에게 20만원, 초등학교 2명에게 10만원에게 총 1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은아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우리의 ‘형제애’ 누가 말려?

정토만일봉사회 보리수동산

“내 사주에는 아들 50명, 딸 50명이 있다.”

경남 고성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봉사회 보리수동산의 원장 승욱 스님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스님의 말 때문인지 요즘 보리수동산의 가족이 부쩍 늘었다. 3살부터 대학 2학년까지 64명의 남녀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경이, 경선 등 개천초등학교에 다니는 13명의 원생들과 정길, 고근, 이슬 등 영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원생 10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보리수동산풍물패는 이번 경연대회를 위해 열흘 이상 맹연습을 하며 땀을 흘렸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강습을 받아왔고, 평소에도 실력을 쌓아왔지만 대회에 참가한다고 생각하니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이다. 처음 연습을 시작할 때만 해도 호흡도 맞지 않고 동작도 작아 볼품



보리수동산 풍물패는 올 청소년 전통예술경연대회에서 대상과 인기상을 받았다.

도 없었다. 그러나 대회 전날 미리 서울에서 온 해명보육원 친구들 앞에서 풍물 시연을 보이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대회 날, 새벽 4시부터 서둘러 동국대학교에 도착한 보리수동산풍

풍물로 청소년 전통예술경연 ‘대상’ ‘인기상’ 2관왕

이달 중순 300명 규모 속소 완성...생활도 ‘호흡 척척’

안고 보리수동산에 들어와 속살이를 하면서 더불어 사는 정을 배운 터라 형제애가 남다르다. 64명의 형제자매들은 승욱 스님이 마련한 보금자리에서 기쁨은 가족 수만큼 키우고 슬픔은 나눠 풀어버리는 법을 터득하고 있다.

이렇게 피로 맺어진 인연보다 더 진한 가족애를 나누며 생활하는 보리수동산에 5월 28일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제19회 청소년전통예술 경연대회에서 보리수동산풍물패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상인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는 소식이었다. 게다가 관중들의 투표로 뽑은 인기상까지 받았으니 보리수동산 가족들의 기쁨은 더욱 컸다.

정식으로 풍물패를 만든 것은 불과 2년 전인데 대회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대상 수상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원생들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키워주기 주고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참가한 대회에서 아이들은 자신감과 희망이라는 또 다른 상을 안고 돌아온 것이다.

물패가 보여준 공연은 어느 팀들과는 달랐다. 대부분 학교나 사찰, 단체 등에 서 모인 팀들인데 비해 보리수동산 풍물패는 가족의 연을 맺은 형제자매이다 보니 호흡이 척척 맞고, 혼연일체가 된 흥겨운 장단은 관중을 사로잡았다.

과동수 담당 교사는 “우리보다 잘한 팀들도 많았는데 아마도 아이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연주하는 모습이 많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보리수풍물패의 수상 소식만큼이나 즐거운 또 하나의 소식이 있다. 6월 중순이면 그동안 공사를 진행해왔던 아이들의 속소가 완공된다. 1·2층의 300명 규모로 지어지는 속소는 아이들에게 풍물패의 수상만큼이나 큰 선물이다. (055)673-5321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청소년들에 지혜 찾아주는 場 되길”

피라미타청소년협회 성주사서 경남지부 발대



사단법인 피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는 6월 3일 창원 성주사에서 경남지부(지부장 원정·사진 오른쪽) 발대식을 봉행했다(사진).

11번째 지부인 경남지부 발대식은 피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원택 스님을 비롯해 고영진 경상남도 교육감,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신연석 회장, 피라미타청소년협회에 가입된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경과보고, 피라미타기, 헌판 전달, 인사, 공로패 전달, 임명장 위촉장 전달의 순서로 진행됐다.

경남지부는 창원, 마산, 진해, 밀양 등 4개 지회와 20여 분회(창원 8개, 마산 8개, 진해 4개, 밀양 3개, 기타 3개)를 결성한 상태이며 앞으로 꾸준히 지회 및 분회를 늘어나갈 방침이다. 천미희 기자

올 여름 어린이수련회 “더 재미있게”

동련, 지도자연수회 성료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지현 스님)이 6월3일부터 4일까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자연과 하나되는 여름불교학교’라는 주제로 제 41차 전국 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했다.

3일 열린 입제식에서 (사동련 총재 혜종스님은 법어를 통해 “휴무도 반납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아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며 “여러분은 아이들의 스승인 만큼 스스로 모범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기본적인 5계를 지킴으로써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동련 이사장 지현스님은 “여러

분은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연꽃 같은 존재”라며 “스스로 이 땅을 청정하게 꽃 피우는 씨앗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많은 것을 배워가라”고 말했다.

여름불교학교와 초등학생 토요일 휴업제로 특성화된 이번 연수회에서 동련 이사장 지현스님은 “여름불교학교를 준비하는 지도자의 자세”에 관한 특강을 했고 경주 흥법사 주지 범명 스님과 부산 흥법사 주지 심산스님, 정일훈 동련 기획팀장은 “우리는 학교 가지 않는 토요일 절에 가요”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연수회에는 서울 조계사 부산 관음사, 강원도 월정사 등 전국 100여곳 사찰에서 500여명이 참가했다.

이은아 기자

周易 講義

부처님 도량에서 마음을 비워보세
그리고 나면 나를 볼 것이네
그리고 나면 반드시 미래의 희망이 오고 있음을 믿을 줄 알아야 하네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짝이 트겠는가?
인연 닿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 장 소 : 寶明寺 (보명사)
- 개강일시 : 2006년 6월 17일 / 매주 2회 (토, 일요일) 오후 3 ~ 5시
- 수 강 료 : 월 12만원 삼개월 과정 (총 36만원)
- 강의내용 : 전화문의
- 강 사 : 방필석 居士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하차 2번 출구로 나오셔서 오른쪽 방향, 마을버스 06번(범원단지행 보명사) 마을버스에 표시
- 문의 : 02)738-2045

자식이 효도하면 아버지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지느니라

재단법인 선학원 寶明寺 보명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3동 610-281호